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5월 2-3일 (토,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은총가득한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세가지 길잡이(Three Clues to Hear Jesus' Voice)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은 희망과 우울, 사랑과 외로움, 격려와 낙담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떤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밀어부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매우 온화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루카24:25)

- 나는 22년간의 영적 육성 후에도 여전히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를 느낍니다. 내가 가끔 내 자신을 속이거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 여러분 모두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정말 소수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에 대해 그룹 영적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암시에 초점을 맞추고, 성
이냐시오의 충고를 살펴보고, 이야기하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요한10:1-5).

- 상징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요한10:26-29);
문지기는 아마도 하느님 아버지이시고(Francis Martin & William M. Wright IV, *The
Gospel of John in Catholic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 187); 예수님은 문이고(요한10:7-9)
목자(요한10:11)입니다:도둑과 도적은 예수님으로 부터 사람들을
떠나게하는 지도자입니다(Raymond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XII*: 388,
392). 예수님의 목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목소리.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세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우리 교구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인간의 존엄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15/12/20/20151220-learning-names/>).

-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패배자야, 쓸모 없어, 추악해, 완전한 실패자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할 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존엄성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10월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들은 역경을 감당할 수 없고 수동적이고, 참여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아이들이 됩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우리는 쓸모없고 한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19/10/20/parenting/>).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진정한 인간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 우리의 존엄성이 위대한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 친구인 빌과 존이 산책을 하며, 빌이 “ 존, 아무도 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말했다고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http://thejustmeasure.ca/2019/10/20/parenting/>). 사람들은 존을 사랑했고, 그는 파티의 삶을 살았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선택했던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10:11). 그분께서는 양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어리석을 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돌아가실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 Michael Dopp은 지난 토요일 (<https://www.youtube.com/watch?v=LNNTXqEG0xg&t=9s>)

UEvangelize Virtual Summit에서 자녀들을 매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삶의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닌, 가장 깊은 행복에 대해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행복을 네가지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1) 즐거움과 순간의 쾌락; 2) 성취와 비교; 3)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4) 초월적인 행복 (Fr. Robert Spitzer, *Finding True Happiness*, 31-33).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서 가리키는 가장 깊고 견뎌내게 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은 몇가지 예입니다:

- 데이트를 하는 한 커플이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방향을 찾고, 집을 구할 기회를 찾을 때로 고려합니다 -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된 고려는 최고의 결혼 생활을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예수님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들이 기다리는 것으로 얻을 것이 없지만, 당장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어떤 길이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미덕이 함께하고, 둘째로 직장 and 가정으로 삶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다른 예: 이전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지를 주목하십시오. 시작 전에는 술에 취하거나 기분을 좋게 끌어올리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후에는 달라집니다. 포르노나 혼외 섹스도 마찬가지로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 후에는 삶의 충만함의 일부인 친밀감을 주지 못합니다.

- 이것은 미덕에 적용되지만, 정반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운동하기 전에 어떤 기분이 자주 드나요? 하기 싫습니다! 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고나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 마지막 예: 탁월함의 목소리와 평범함의 목소리를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문화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일하고 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의 일은 무엇일까(Matthew Kelly, *Rediscover Catholicism*, 28-29)?
 -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전부를 인류에 줄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 휴식의 목소리는 게으름의 목소리와는 다릅니다: 휴식의 목소리는 미래의 더 큰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반면, 게으름은 자기 중심적이고 슬픈 삶으로 이어집니다.

3)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진실을 제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요한 복음 18:37 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시는 것과 일치하나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에 있습니다(Matthew Kelly, *Rediscover Catholicism*, 28-29).

- 우리가 ‘진실’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1)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궁금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종종 그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추론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계획을
어렵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실에 우리 자신을 달고 적어도 작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속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모른다면, 곧 시작하는 온라인 Faith Study에
등록하십시오. 2)훌륭한 가톨릭연설가인 마크 하트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막는 그 누구든, 어떤
것이든 내 삶에서 가져가십시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에 대해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싶으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에서 선과
악을 빼앗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십니다. 이 단서들을 이나시오 성인에 따라 두 가지 분별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분별 규칙에서 그는 “치명적인 죄에서
치명적인 죄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렵지만 도움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은

무엇인가?입니다.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치명적인 죄에 휘말리는 것일까요? 사악한 죄는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쨌든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적들은 쾌락에 초점을 맞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족을 희생시켜 많은 돈을 벌고, 정욕적인 생각, 혼외 섹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Fr. Timothy Gallagher, OMV, *The Discernment of Spirits*, 35)과 편안함이 우려될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1)우리는 사랑 받고 있고 선택합니다. 2) 우리는 자유롭게 치유되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3) 그분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왜 당신을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치게 하는 건가요? 뒤돌아 보면 지금 자신이 이끄는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냐시오 성인의 두번째 규칙은 “자신의 죄를 집중적으로 정화하고 더 나은 것으로 부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죄를 없애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많은 불만을 줄 것이고, 기도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하느님을 섬기려는 노력은 어려워 보일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옛 우정을 잃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와!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인도, 더 충만한 삶에 대한 요구도 없고, 많은 과장들입니다.

- 그건 그렇고, 우리는 적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 중에 성 미카엘의 기도문을 하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악마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기를 조용히 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너 정말 잘한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모두 보라! 너는 이미 너무 많이 자랐어. 너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사랑해! 2) 여러분은 더 깊은 평화와 관계를 경험 할 것이고, 사람들을 돕는데 만족 할 것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치유될 것입니다. 3)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밀어 부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CSB의 Fr. David Bauer가 나의 어머니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 NHL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키를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캐나다 올림픽 팀을 지도했고 현재 NHL 명예의 전당에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UBC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십니다.”라는 의미는 더 깊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의미를 의미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15살 때, 그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를 중단했습니다(COVID-19같은 상황). 지루함은 그가 제멋대로 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악한 것들로 나를 채우기 위해 불타 있었다.” 그가 17살이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성적인 만남을 자랑했고, 아우구스티노를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여자 친구가 있었고, 18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 몇 년 동안 그는 진실과 지혜를 갈망했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지쳤다고 느꼈지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31세 때, 한 친구가 그에게 자신의 두명의 친지가 안토니오 성인이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은둔자가 되었는데 지를 들은 후 공무직을 내려놓고 수도자로 살게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더 풍성한 삶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 삶을 원했지만, 또한 쾌락의 삶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께서 옛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경우를 대비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채찍질 하셨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죄에서 죄로 가는 첫 단계에 있었습니다)
- 나중에 그는 하느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지난 생활의 목소리가 그를 부르며 “우리를 버릴꺼야?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청결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며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 그 여자는 내게 용기를 주기 위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 남녀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나요? 당신은 그들의 주님이신 하느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것을 할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나요?...하느님께 자신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넘어뜨리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의 병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 잘 알려진 ,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는 “받아서 읽어라,”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13:12).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알리피우스에게 그의 기쁨에 대해 말했고 알리피우스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길을 잃은 후,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삶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가지 단서를 보여줍니다: 1) 우리 각자의 선함,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힘을 사용하여 우리를 돕습니다; 2) 아우구스티노는 우리 모두가 깊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 오늘 미사 후에 온라인 채팅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주에 기억해야 할 세가지 단서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삶의 충만함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진실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